

# 술술 이야기 읽기 2

# 옛이야기





## 술술 이야기 읽기 2

### 옛이야기

발행일 2022. 11.  
발행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엮은이 김수지 · 김인숙 · 박미라 · 서화진  
편집인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 민병철, 최민음  
주소 (본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도화동) 14층  
전화번호 02.719.6017  
홈페이지 slei.seoul.kr

본 제작물은 저작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발행했습니다.  
작품별 QR 코드를 스캔하면 오디오북이 재생됩니다.

오디오북 전권



# 차례

## 1부 이솝우화

- 01 포도밭에 보물을 숨겨 놓은 농부 3
- 02 개미와 비둘기 5
- 03 여우와 두루미 7
- 04 곰과 두 친구 10

## 2부 우리나라 옛이야기 (1)

- 05 해와 달이 된 오누이 17
- 06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 21
- 07 신기한 항아리 24
- 08 딸랑 귀신 27
- 09 오성과 한음: 우정의 시작 31

- 10 오성과 한음: 감나무 이야기 33
- 11 오성과 한음: 암탉이 된 한음 35
- 12 황희 정승과 두 마리 소 38
- 13 안동 하회탈 41
- 14 청백리 이후백 44
- 15 사명대사와 서산대사의 대결 47

### 3부 우리나라 옛이야기 (2)

- 16 단 방귀 장수 53
- 17 고수레에 얹힌 사연 58
- 18 송아지와 바꾼 무 62
- 19 신기한 재주로 도둑 떼를 물리친 전우치 67
- 20 견우와 직녀 72
- 21 소금이 나오는 맷돌 1 76
- 22 소금이 나오는 맷돌 2 80
- 23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85

**24** 시골 쥐와 서울 쥐 91

**25** 손톱 먹은 둔갑 쥐 97

**26** 젊어지는 샘물 103

**27** 복을 받은 흥부 108

## 4부 외국 동화

**28** 돌멩이 수프 115

**29** 성냥팔이 소녀 121

**30** 벌거벗은 임금님 127









01

## 포도밭에 보물을 숨겨 놓은 농부

병상에 누워 죽음을 앞둔 농부가 있었다. 농부에게는 걱정이 있었다. 농사를 지어 보지 않은 자식들이 농부가 죽고 나면 포도밭을 팔아 흥청망청 써 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다.

하루는 농부가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 포도밭에 보물을 숨겨 놓았으니 그것을 찾도록 하여라.”

유언을 남기고 농부는 죽었다.

자식들은 농부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포도밭을 파기 시작했다. 석 달이 넘게 포도밭을 열심히 파헤쳤지만 보물은 나오지 않았다. 자식들은 크게 실망했다.



하지만 포도밭을 모두 파헤친 덕분에 밭이 잘  
가꾸어져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다. 그래서 그해 포도  
수확으로 자식들은 큰돈을 벌게 되었다.



02

## 개미와 비둘기

물에 빠진 개미를 구해 준 비둘기와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개미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숲속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개미가 강물에  
휩쓸려 갔어요. 이것을 본 비둘기가 강에 나뭇잎을  
하나 떨어뜨려 주었어요. 개미는 나뭇잎 배를 타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숲속 마을은 평화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숲속 마을에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향해 총을 겨누었어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개미가 사냥꾼의 발목을 꽉 깨물었어요.

사냥꾼이 “아야” 하고 소리쳤어요. 사냥꾼의 비명  
소리에 비둘기는 멀리 날아갔어요.

개미 덕분에 비둘기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어요.



03

## 여우와 두루미

어느 날 두루미의 옆집에 여우가 이사를 왔습니다.

여우는 이웃인 두루미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두루미를 초대했습니다. 여우는  
두루미를 기다리며 맛있는 죽을 끓였습니다.

여우는 집에 도착한 두루미를 보고 무척 환영해  
주었습니다.

“두루미 왔는가? 어서 오게.”

여우는 두루미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우는  
두루미를 위해 죽을 내왔습니다. 죽은 납작한 접시에  
잘 담겨 있었습니다. 여우는 할짝할짝 맛있게 죽을  
핥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두루미는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리가 긴 두루미가 납작한 접시에 담긴 죽을 먹기란 불가능했습니다. 두루미는 배고픈 채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루미는 길을 가다 여우를 만났습니다. 두루미가 여우에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여우 아닌가. 반갑네.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오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네.”

“좋지. 고마워. 내일 보세.”

여우는 두루미의 초대에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두루미가 집에 도착한 여우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우가 식탁에 앉자 두루미는 호리병을 가져왔습니다. 호리병에는 맛있는 죽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루미는 호리병에 긴 부리를 넣고 죽을 남남 쩍쩝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아무리 주둥이를 호리병에 넣으려고 해 봐도 넣을 수



없었습니다.

낑낑거리는 여우의 모습을 보고 두루미가  
말했습니다.

“여우 자네, 내가 지난번에 납작한 그릇으로 밥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젠 알겠나?”

여우는 두루미의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루미의 긴 부리를 고려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사과했습니다. 두루미는 여우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 주었습니다.



04

## 곰과 두 친구

어느 마을에 사이가 좋기로 유명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모자 장수였고, 다른 한 명은 신발  
장수였습니다.

따듯한 봄이 되자 두 친구는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햇볕은 따뜻했고, 봄바람은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서 모자를 하나 만들어 왔네.”

모자 장수가 말했습니다.

“고맙네. 나도 자네를 위해서 등산화를 한 켤레  
가져왔지.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 사이일세.”

신발 장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친구는 선물을 주고받은 후에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두 친구의 다리가  
아파 왔습니다.

“많이 걸었더니, 다리가 조금 아프구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세.”

모자 장수가 커다란 돌 위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두  
친구는 돌 위에 앉아 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으악!”

그런데 갑자기 신발 장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람 같이  
달아났습니다. 모자 장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얼떨떨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본 모자 장수는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너무  
놀랐습니다. 모자 장수의 뒤에서 커다란 곰이  
어슬렁어슬렁 기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자 장수는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곰은  
점점 모자 장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옳지! 곰은 살아 있는 것만 먹는다고 했어. 일단 죽은 척이라도 해 보자.’

모자 장수는 자리에 얼른 엎드려 눈을 질끈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곰은 죽은 척하고 있는 모자 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곰은 커다란 발로 모자 장수를 건드려 보았습니다. 모자 장수의 냄새도 맡아 보았습니다. 모자 장수는 너무 무서웠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곰은 모자 장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자 장수는 눈을 가늘게 떠서 곰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자리에서 서서히 일어나며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친구! 괜찮은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네!”

혼자 나무 위로 달아났던 신발 장수가 슬금슬금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신발 장수는 민망해하며 모자 장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아까는 너무 놀라서 혼자 달아나 버렸지



뭐야… 정말 미안하네. 그런데 곰이 자네 귀에다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던데 말이야. 뭐라고 하던가?”

신발 장수가 모자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모자 장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더군. 나는 이만 가 보겠네.”

모자 장수의 대답을 들은 신발 장수는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자 장수의 마음은 떠난 뒤였습니다.









05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시장에 떡을 팔며 살아가는 어머니와 오누이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오누이가 같이 떡을 만들고,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팔았어요. 어머니가 한 번 시장에 가면 오누이는 단둘이서만 며칠을 보내야 했어요. 시장이 집에서 한참 멀었거든요.

어머니는 떠나기 전에 오누이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얘들아, 절대로 엄마 이외에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 주면 안 된다. 알겠지?”

그날도 오누이는 집에서 시장에 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누이는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기다리던 어머니가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데요?”

오빠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오는 길에 날이 추워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해졌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시 문을 열라고 했어요.

“그럼 문 안으로 손을 내밀어 보세요.”

동생이 말했어요. 그러자 문 안으로 손 하나가 들어왔어요. 손에 하얗게 분이 발라져 있었지만 어머니의 손 같지 않았어요. 오누이는 어머니가 아님을 알았어요. 오누이는 조심스럽게 창호지에 구멍을 슬그머니 뚫었어요. 문밖에는 어머니 옷을 입은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서 있었어요.

오누이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다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어머니, 부엌에서 물 한 잔만 가져다주세요. 목이



너무 말라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오빠가 말했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얼른 잡아먹고  
싶은 마음에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오누이는 곧바로  
문을 열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호랑이에게 금방  
들키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빠른 속도로 오누이를  
쫓아왔어요.

오누이는 눈앞에 보이는 나무로 재빠르게 기어  
올라갔어요. 오누이는 하늘을 보며 동아줄을 내려  
주어 살려 달라고 빌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단단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바로 코앞에서 오누이를 놓쳤어요.  
호랑이도 하늘을 보고 동아줄을 내려 달라고 말했어요.  
하늘에서 동아줄이 한 번 더 내려왔어요. 호랑이도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갑자기 동아줄이 뚝 하고 끊어졌어요. 호랑이에게 내려온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호랑이는 땅으로 떨어졌어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어요.  
동생은 밤이 무섭다며 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달이 되었지요.



06

##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

한양에서 열심히 일을 한 총각이 있었어요. 삼년 동안 일한 품삯으로 금덩이를 받았어요. 금덩이로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려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가던 길에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조금 뒤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주막집 주인이었어요.

“총각이 금덩이를 두고 갔다네. 찾아 주려고 이렇게 쫓아왔네.”

총각은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갔어요.



잠시 뒤 강가에 이르렀어요. 그때 물에 빠진 한  
아이가 보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선뜻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총각은 헤엄을 칠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어요.

“저 아이를 구해 주면 이 금덩이를 드리겠소.”  
총각은 금덩이를 꺼내 보이며 외쳤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어요.  
총각은 그 사람에게 금덩이를 주었어요.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주막집 주인이었어요!

“정말 고맙네. 우리 아들을 구해 주고 귀한 금덩이까지 다른 사람에게 주다니….”

주막집 주인이 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금덩이가 사람 목숨보다 귀하겠습니까? 그 금덩이는 주막에 두고 나왔을 때 이미 잊어버린 물건이었어요. 주인장의 정직한 마음씨가 아들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총각은 인사를 하고 다시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07

## 신기한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 농부는 열심히 일해서 욕심쟁이 부자 영감의 밭을 샀다. 어느 날 밭에서 김을 매다 땅속에서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다. 뚜껑에 금이 가고 못생긴 커다란 항아리였다.

알뜰한 농부는 항아리를 버리기가 아까워 집으로 가져왔다. 저녁밥을 먹고 농부는 항아리 안에 호미를 넣어 놓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일을 하기 위해 항아리 안에 넣어 둔 호미를 꺼냈다. 그런데 그 안에 호미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농부가 항아리에 사발을 넣었고,

사발이 하나 더 생겨났다. 엽전, 옷, 쌀, 무엇이든 넣으면 똑같은 것이 자꾸 생겨났다. 신기한 요술 항아리였던 것이다.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농부의 소문을 듣고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농부를 찾아갔다. 그 항아리는 원래 자신의 밭에 있었던 것이니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농부와 부자 영감은 옥신각신 다투게 되었다.

결국 누가 항아리의 주인인지 관아에 가서 물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 항아리를 보자 원님도 탐이 났다. 원님은 항아리를 둘로 나누면 쓸모가 없어지니 관아에 보관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몰래 항아리를 자기 집으로 가져왔다.

집에 오자마자 항아리에 넣을 가장 비싼 물건을 찾느라 바빴다. 그 사이에 아흔이 넘은 원님의 아버지가 항아리에 뭐가 있나 하고 들여다보다가 그 안에 쑥 빼지고 말았다. 아버지는 “아이쿠, 나 좀 살려 줘” 하고 소리쳤다. 놀라서 달려온 원님은 얼른



아버지를 꺼냈다.

그런데 항아리 속에 “아이쿠, 나 좀 살려 줘” 하고  
외치는 아버지가 또 있었다. 순식간에 마루가 원님의  
아버지들로 꽉 차고 말았다. 모두 자기가 진짜  
아버지라고 다투며 큰 싸움까지 났다.

그러다 항아리를 잘못 건드려서 박살이 나고 말았다.  
그 순간 가짜 아버지들은 연기처럼 모두 사라졌다.  
진짜 아버지를 찾게 된 원님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08

## 딸랑 귀신

한 선비가 말을 타고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고개를 내려오기 전에 그만 날이 깜깜해졌다. 주위는 어둡고 무서웠다. 서둘러 길을 찾는데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선비는 불빛을 향해 달려갔다. 작은 대문이 있는 초가집이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선비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다.

방문을 열어 보니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길 잃은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 주세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비는 말을 마당에 묶어 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무섭고 피곤했던 선비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할머니의 코 고는 소리에 곧 잠이 깼다. 선비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자고 있는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이불  
밖으로 호랑이의 누런 꼬리가 보였다. 너무 놀란  
선비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호랑이가 할머니로 둔갑을 한 것이구나.'  
선비는 이곳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한참을 궁리했다.  
선비는 몰래 마당으로 나가 말의 목에 달린 방울을  
풀어 왔다. 그리고 호랑이의 꼬리에 살짝 방울을  
매달았다.  
다시 자리에 누워 "딸랑 귀신아, 딸랑 귀신아" 하며  
잠꼬대하는 시늉을 했다. 할머니가 선비를 깨우며  
무슨 말인지 물었다.  
"이 산은 험하고 호랑이가 많지요. 그래서 호랑이를  
잡아먹는 딸랑 귀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볼일을 보고 온다 했는데 아직도 안 와서요."  
선비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딸랑 귀신이라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딸랑 귀신을 모르세요? 딸랑딸랑 소리를 내고  
호랑이를 보면 꼬리에 착 붙어서 잡아먹어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안절부절못하다 냉큼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호랑이 꼬리에 매단 방울이  
신나게 딸랑딸랑 소리를 냈다.

“아이고, 딸랑 귀신이 왔다.”

할머니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갔다.

“휴, 딸랑 귀신 덕분에 내가 살았네.”

선비는 큰 숨을 쉬며 식은땀을 닦았다.



09

## 오성과 한음: 우정의 시작

오성과 한음은 다섯 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로 유명하다. 오성의 이름은 이항복, 한음의 이름은 이덕형이다. 두 사람은 조선 시대 최고 벼슬인 영의정에 올랐고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치는 등 큰 활약을 했다.

오성과 한음은 어릴 때부터 재주가 많고 영리했다. 오성은 장난도 잘 치고 꾀가 많아 한음을 자주 놀리곤 했다. 하지만 한음은 생각이 깊고 너그러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오성과 한음이 서당에서 처음 만난 날이었다. 천자문을 공부하는데 훈장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오성은 훈장님을 골려 주려고 화롯불에 밤을 넣었다.

밤이 익으며 껍질이 터지는 소리에 훈장님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그때 한음이 나서서 군밤을 먹으면 졸음이 달아나서  
일부러 밤을 구웠다고 재치 있게 말했다. 훈장님은  
허허 웃으며 밤을 맛있게 먹었다.

그런 한음이 마음에 든 오성은 자기보다 다섯 살이나  
어리지만 친구를 하자고 청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이 시작되었다.



10

## 오성과 한음: 감나무 이야기

오성이 어렸을 때의 일이다. 오성은 권율이라는 장군의 옆집에 살았다. 오성의 집에는 큰 감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감나무 가지가 권율의 집 마당으로 휘어 들어갔다. 그 가지의 감이 익자 권율의 하인들이 마음대로 감을 차지했다.

화가 난 오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권율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권율의 방문에 주먹을 짤러 넣었다. 방문의 창호지가 찢어지는 소리에 권율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무슨 일로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이때다 싶어 오성이 물었다.

“방문에 들어간 이 주먹은 누구의 주먹입니까?”

“네 몸에 있으니까 네 주먹이지, 누구의 주먹이겠느냐.”

“그러면 저희 집 감나무의 감은 누구 것입니까?”

“너희 집에 있으니까 감도 너희 것이지.”

그러자 오성은 하인들이 감을 가로챈 일을 추궁했다.

권율은 어리지만 용기 있고 지혜로운 오성을 보고 감탄했다. 그리고 나중에 오성을 손주 사위로 삼았다.



11

## 오성과 한음: 암탉이 된 한음

오성과 한음은 같은 해에 과거를 보고 합격했다. 두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우정을 과시했다. 그리고 궁에서도 재치 있는 장난으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이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두 사람의 재치를 시험하고 싶었다. 그래서 한음이 일찍 퇴궐을 한 날,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경들은 내일 조회 때 달걀 세 알씩을 들고 오시오. 허나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절대 전하지 마시오.”

오성은 한음을 걱정했으나 임금님의 명을 어길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이 말을 듣지 못한 한음은 신하들이 달걀 세 알씩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금방 임금님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경들은 가져온 달걀 세 알씩을 꺼내 보시오” 하고 임금님이 말했다.

신하들은 모두 달걀 세 알씩을 바쳤다. 그러자 한음은 갑자기 닭 울음소리를 냈다.

“꼬꼬댁 꼬꼬. 꼬끼오.”

모두 깜짝 놀라 한음을 쳐다보았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암탉 울음소리입니다. 감히 임금님께 아무 달걀이나 올릴 수 없어 어미인 암탉을 대령했습니다.”

한음의 기발한 대답에 임금님은 크게 웃음을 터트렸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한음의 지혜와 재치에 크게 탄복했다.

한음은 임금님의 명을 어길 수 없어 이야기하지 못한 오성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퇴청을 하며 일부러 오성에게 서운한 듯 물었다.

“자네는 친구가 위기에 빠질 것을 알면서 왜 귀띔해 주지 않았나?”

“내 친구 한음은 그런 함정에 걸려들 사람이 아닌 것을 잘 알기 때문이지.”

“허허허.”

오성과 한음은 마주 보며 크게 웃었다.



12

## 황희 정승과 두 마리 소

황희는 젊었을 때 자신의 재주만 믿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말을 함부로 하기도 했다. 황희가 암행어사가 되어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려고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다.

영남 지방의 들판에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다. 황희는 땀을 식히려고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런데 건너편 논에서 늙은 농부가 누렁소 한 마리와 검정소 한 마리를 데리고 쟁기질을 하고 있었다.

황희는 한참을 구경하다 그 농부에게 물었다.

“누렁소와 검정소 중에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오?”



늙은 농부는 쟁기를 내려놓고 황희가 있는 나무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황희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누렁소가 더 잘합니다.”

황희는 농부의 행동이 이상하여 물었다.

“아니, 그냥 논에서 해도 될 말을 가지고 일부러 여기까지 나오시오? 그리고 왜 귀에 대고 소근거리오?”

늙은 농부는 이 말에 얼굴을 붉히며 답했다.

“두 마리가 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더  
잘한다고 하면 못하는 쪽은 기분 나쁠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짐승이라도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소!”

황희는 농부의 말을 듣고 자신의 경솔함을 크게  
깨달았다. 소를 대할 때도 이와 같아야 하거늘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감사하오.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소.”

황희는 늙은 농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큰절을  
했다.

이후 황희는 언행을 조심하고 죽을 때까지 남의  
단점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분이 낮은 농부의 말에서도 지혜를 얻어  
실천하며 겸손하고 훌륭한 정승으로 이름을 남겼다.



13

## 안동 하회탈

‘안동 하회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항상 웃고 있는 양반탈, 우락부락한 백정탈 등이  
떠오르지요.

양반 동네로 알려진 안동은 하회마을로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하회마을은 하회 탈춤과 하회  
별신굿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회탈 중에 턱이 없는 이매탈이 있어요. 턱이 없어  
‘바보탈’이라고도 해요. 지금부터 이매탈의 턱이 왜  
없는지 알려 드릴게요.

옛날에 하회마을에 우환이 자꾸 생겼대요. 이



마을에는 탈을 만드는 허 도령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허 도령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어요.

“마을에 우환이 없어지려면 열두 가지 탈을 만들어야 한다. 날마다 목욕을 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탈을 만드는 모습을 어느 누구도 봐서는 안 된다.”

허 도령은 집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양반탈, 선비탈, 할미탈, 각시탈 등

열한 가지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 허 도령을 사모하던 김씨 처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김씨 처녀가 허 도령이 너무 보고 싶어 몰래 집 안을 엿보았어요. 그 순간 허 도령은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때 허 도령이 만들고 있던 열두 번째 탈 이매탈은 결국 완성되지 못하고 턱이 없는 탈이 되었답니다.

그 후 김씨 처녀는 허 도령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에 목을 매어 죽었대요. 마을 사람들은 김씨 처녀를 위로하기 위해 탈놀이를 시작했어요.

또 허 도령의 넋을 위로하며 제사와 굿을 했어요. 이때 생긴 굿이 바로 유명한 하회 별신굿이랍니다.



14

## 청백리 이후백

조선 시대에 이후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청백하기로 아주 이름이 높았다. 이후백이 이조 판서로 있을 때의 일이다. 이조는 문관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였다.

이후백은 사람을 쓸 때 반드시 아랫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의견이 일치하면 등용했다. 그렇게 하고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벼슬자리에 추천했다고 생각되면 밤새 “내가 임금을 속였다”고 한탄했다고 한다.

또 자기 손을 거쳐서 벼슬자리에 나아간 사람이 청렴한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또한



이후백은 공직에 있는 동안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자주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뻘인 젊고 유망한 사람이  
이후백을 찾아왔다.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슬며시 벼슬자리 이야기를 꺼냈다. 이후백의 청렴함을  
알지만 같은 집안사람인 것을 믿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것이다.

이후백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장롱에서  
조그마한 책을 꺼내 그에게 보여 주었다.

“이 책은 내가 장차 벼슬자리에 추천할 만한 인재의 이름을 적어 두는 것이오. 여기에는 분명 그대의 이름이 들어 있소이다.”

“.....”

“머지않아 적당한 관직이 있으면 추천할 생각이었소. 그런데 자네가 나를 찾아와 벼슬을 청탁하니 이것은 공평한 일이 아닐 것이오. 자네가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서야 어찌 추천할 수 있겠소?”

“.....”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나는 자네의 이름을 이 책에서 지워 버리겠소.”

이후백은 봇을 들어 그 사람의 이름을 바로 지워 버렸다. 벼슬자리를 부탁하던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그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15

## 사명대사와 서산대사의 대결

지금부터 400여 년 전 사명대사와 서산대사의 이야기야. 두 분은 조선 시대, 덕망 있는 뛰어난 승려이자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호국 스님이지.

사명대사가 묘향산에서 도를 닦고 있을 때였어. 항간에는 서산대사의 도술 실력이 더 낫다는 풍문이 퍼지고 있었어. 이에 사명대사는 서산대사와 도술 실력을 겨뤄 보기로 했어.

사명대사는 금강산 장안사에 있는 서산대사를 찾아 나섰지. 그런데 서산대사는 사명대사가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



장안사에 도착한 사명대사는 대뜸 서산대사를  
시험하려고 물었어. “여기 오다가 고운 새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 새가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하고  
장난치듯 물었어.

마침 이때 서산대사가 방 밖으로 막 나서려던  
참이었거든. 그래서 “소승이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맞받아 대답했지.

이렇게 두 사람은 첫인사를 나누었어.

점심때가 되자 서산대사가 “먼 길에 시장하셨을 텐데

맛없는 국수지만 맛있게 드시오”라고 말했어. 그런데  
사발에는 국수 대신 바늘이 가득 담겨 있는 거야.

서산대사는 국수 사발을 맛있게 비웠는데  
사명대사는 먹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사명대사는 무릎을 꿇으며 그날로  
서산대사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









16

## 단 방귀 장수

옛날 어느 산골에 욕심 많은 형과 동생이 살았다.  
 무더운 여름날 형은 동생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라고 했다. 동생은 나무를 한참  
 하다가 배가 고파 나뭇단 옆에 벌렁 누웠다.  
 이때 동생 얼굴 위로 꿀벌 한 마리가 윙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아, 저 벌을 따라가면 꿀을 얻어먹을 수 있겠지.”  
 그런데 꿀벌이 어느 바위틈으로 쏙 날아 들어가  
 버렸다. 동생은 작은 바위 몇 개를 들어냈다. 그랬더니  
 그 속에 꿀이 흐르는 냇물이 있었다. 배가 고팠던  
 나무꾼은 두 손으로 꿀을 떠 허겁지겁 먹었다.

너무 배가 불러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가 되었다. 뒤풍거리며 걷다가 방귀를 봉 꾸었다. 그런데 꿀을 먹고 방귀를 꾸어서 그런지 방귀 냄새가 아주 달달했다.

동생은 갑자기 손뼉을 쳤다. 방귀를 팔면 돈벌이가 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시장에 방귀를 팔러 나갔다.

“단 방귀 사시오! 단 방귀 사시오!”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미친놈이 방귀를 돈 주고 사겠냐고 비웃었다.

이 소문을 들은 고을 원님이 심심하여 방귀 장수를 불렀다.

“네 방귀가 정말로 단 방귀냐? 내가 입맛이 없어서 그런데 방귀를 좀 팔아 보거라.”

“예, 원님. 방귀 한 방에 쌀 한 말만 주십쇼.”

“허허. 그래, 어서 꿔어 보아라.”

방귀 장수가 엉덩이를 원님 코앞에다 대고 방귀를 봉하고 꾸었다.

원님이 방귀 맛을 보니 아주 달달했다. 쌀 한 말을

주고 산 방귀가 아까워서 방귀 냄새를 알뜰히 맡았다.  
그리고 아내, 아들, 딸, 며느리까지 다 불러서 방귀를  
한 방씩 먹였다.

방귀 장수가 된 동생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 이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형은 살살 배가  
아팠다. 당장 동생의 집으로 가서 물었다.

“야, 너는 무슨 도적질을 했길래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느냐?”

동생은 갑자기 형을 골려 주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

“형님, 콩을 볶으면 고소하지요. 콩을 볶아 한 되  
먹고 찬물에 고춧가루를 넣어 한 동이 드세요. 그럼  
방귀가 아주 고소하게 나온답니다.”

욕심쟁이 형님은 좋아하며 집에 가자마자 콩을 볶아  
먹고 찬물을 들이켰다. 배가 뒤틀리고 뚝이  
마려웠지만 뚩구멍을 꽉 막고 비비적거리며 원님에게  
달려갔다.

“원님, 어서 단 방귀를 사십시오!”



형님은 조그맣게 소리쳤다. 잘못 힘을 주었다간  
똥이 다 샐 것 같았다.

원님은 지난번 방귀가 아주 맛이 좋았으니 이번에도  
사겠다고 했다. 원님이 형의 엉덩이에 얼굴을 바짝  
댔다. 비싼 방귀니 아까워서 아주 바짝 댔다.

형님이 엉덩이를 원님 코앞에 대고 배를 쿡 누르자  
그만 설사 똥이 팍 튀어나왔다. 원님은 갑자기 똥  
벼락을 맞고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욕심 많은 형님은

원님에게 혼이 날까 봐 설사 뚫을 싸면서 출행랑을  
쳤다.



## 고수레에 얹힌 사연

옛날 어느 대가에 고씨 성을 하녀가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고씨 처녀가 냇가로 빨래를 하러 갔어요. 냇물에 붉은 복숭아가 떠내려왔어요. 추운 겨울에 복숭아라니, 의아했지만 너무 맛있게 보여 복숭아를 먹었어요.

처녀는 복숭아를 먹고 나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 달 뒤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의 이름은 복숭아에서 유래되었다 하여 도손이라 지었어요. 도손이는 클수록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도손이를 시기하여 아비 없는 자식이라며 무시하고 놀렸어요.



놀림을 받은 도손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고씨도 눈물을 흘리며 도손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말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도손이는 마을을 떠나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도손이는 중국에 가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  
풍수지리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도손이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도손아, 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어머니를

김포평야에 장사 지내 주고 돌아오거라.”

도손이가 급히 고향에 갔더니 정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였어요. 도손이는 스승의 말대로 어머니를

김포평야에 몰래 묻어 주었어요.

얼마 후 김포평야에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농부들은 흉년으로 짚주리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름 없는 고씨 부인의 묘를 돌보아 주던 묘 옆의 논

주인만 신기하게도 흉년에서 벗어났대요.

이 소문이 퍼져 근처의 농부들이 몰려들어 고씨의  
무덤을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고씨 무덤과 멀리  
떨어진 논의 농부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첫 숟가락을  
떠서 고씨 무덤을 향해 “고씨네” 하고 바쳤대요. 그래서  
모두 흉년에서 벗어났다고 해요.

고수레는 ‘고씨네’에서 온 말이랍니다.

고시래, 고씨네, 고씨례 등 여러 가지 말이 쓰이다가  
‘고수레’가 표준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래된 풍습이 오늘까지 전해져  
왔어요. 고수레는 한 해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논이나 산에서 음식을 먹을 때 조금 떼어서 “고수레”  
하며 허공에 던지지요. 동식물이 땅에 떨어진 음식을  
나눠 먹으며 사람과 공존하도록 한답니다.



## 송아지와 바꾼 무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다. 농부는 밭에 무 농사를 크게 지었다. 농부는 무가 잘 자라도록 정성껏 가꾸었다. 가을이 되자 무가 쑥쑥 잘 자랐다. 잘 자란 무 중 하나가 어른 허리춤에 올 만큼 컸다.

‘이렇게 크고 탐스러운 무를 아까워서 어떻게 먹지?’

농부는 이 큰 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다.

‘옳지. 이 귀한 무를 원님에게 선물로 바쳐야겠다.’

이 마을 원님은 사리가 분명하고 어진 사람이었다.

농부는 무를 짚으로 곱게 싸서 원님에게 가지고 갔다.

“원님 덕분에 올해는 농사가 더 잘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크고 귀한 무는 처음  
봅니다.”

농부는 짚으로 쌈 무를 원님 앞에 바쳤다.

원님은 입이 닳도록 농부를 칭찬했다.

“이 귀한 선물을 받고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여보게, 이방. 요즘 들어온 물건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예, 송아지가 한 마리 있사옵니다.”

“그럼 그 송아지를 이 사람에게 내주게.”

농부는 원님이 송아지를 주자 깜짝 놀랐다.

“원님, 이 송아지는 과분한 선물입니다. 저는 단지  
귀한 무를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농부가 원님에게 말했다.

“고맙구나. 나도 귀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었을  
뿐이다. 허허.”

“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농부는 원님에게 인사를 하고 기뻐서 춤을 추며  
송아지를 끌고 집으로 왔다.



무 하나가 송아지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농부도 그 소문을 들었다. 욕심쟁이 농부는  
너무 부럽고 샘이 났다. 어떻게 하면 자신도 횡재를  
할지 궁리를 했다.

‘그래. 지금이라도 원님께 좋은 것을 바쳐야지.  
그리면 원님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상으로 주시겠지.’  
욕심쟁이 농부는 무엇을 가져가면 좋을지 밤새  
궁리를 했다.

‘그 농부는 무 하나를 바치고 송아지를 얻었으니  
나는 송아지를 바치면 더 큰 선물을 주시겠지.’  
욕심쟁이 농부는 원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속으로  
좋아했다.

날이 밝자마자 욕심쟁이 농부는 송아지를 끌고  
원님을 찾아갔다.

“원님, 이 송아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예쁘고 건강한  
송아지는 처음입니다. 원님 덕분에 모든 것이 잘 크니  
이 송아지를 원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번에도 원님은 입이 마르도록 농부를 칭찬하고  
이방을 불렀다.

“여보게, 이방. 요즘 들어온 물건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귀한 것이라면… 며칠 전에 들어온, 어른  
허리춤에 올 만큼 큰 무입니다.”

“옳거니, 크고 귀한 그 무를 이 농부에게 상으로  
주어라.”

원님이 이방에게 명령했다.

이방이 어른 허리춤에 올 만큼 큰 무를 욕심쟁이  
농부에게 안겨 주었다. 자기 꾀에 스스로 속아 넘어간  
욕심쟁이 농부는 할 수 없이 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19

## 신기한 재주로 도둑 떼를 물리친 전우치 \*

나라에 큰 도둑 떼가 나타났다. 도둑들은 재물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병사들은 도둑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다. 임금은 크게 걱정하며 신하들을 모아 의논했다. 도둑 떼를 물리칠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

전우치가 임금에게 말했다.

“도둑 떼의 수가 많고 사납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임금이 크게 기뻐하며 전우치를 칭찬했다. 전우치가

---

\* 한국어읽기연구회(2013). 『전우치전』. 학이시습; 54~60쪽.

미웠지만 고마웠다. 임금은 전우치에게 병사들을 데려가라고 했다. 그리고 장군임을 표시하는 칼도 주었다.

전우치는 도둑 떼가 있는 산으로 갔다. 전우치는 병사들을 산 아래에 있게 했다. 그리고 전우치는 새로 변하여 산 위로 날아갔다. 산 위에 가서는 장군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도둑 떼의 두목은 어서 나와라.”

잠시 후 두목이 말을 타고 나왔다.

“내가 두목이다. 너는 누구인데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나는 전우치이다. 임금님께서 너를 잡아 오라고 하셨다.”

두목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네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두목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두목은 무술이 뛰어났다. 전우치는 무술로 두목을 이길 수 없었다.



전우치는 요술을 부려 두목을 잡기로 했다. 전우치는  
요술을 부려 전우치를 여러 명 만들었다. 열 명도 넘는  
전우치들이 두목에게 달려들었다. 두목은 너무 놀라  
달아나려고 했다. 하지만 여러 명의 전우치들에게서  
달아날 수 없었다. 두목은 결국 칼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가짜 전우치들이 사라졌다. 전우치는 두목을  
밧줄로 묶었다.  
도둑들은 두목이 잡히자 겁이 났다. 도둑들은

전우치에게 무릎을 끓고 살려 달라고 했다. 전우치는 도둑들을 꾸짖으며 말했다.

“너희의 죄는 매우 크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니 용서해 주겠다. 앞으로 착한 백성이 되어라. 알겠느냐?”

도둑들은 알겠다고 크게 대답을 했다. 도둑들은 기뻐하며 흘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전우치는 두목을 끌고 병사들이 있는 산 아래로 갔다. 전우치가 두목에게 말했다.

“너는 재주가 뛰어나다. 그 재주를 나라를 위해 쓰지 않고 도둑이 되었다. 네 죄를 생각하면 너는 죽어야 한다.”

그러자 두목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전우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목을 풀어 주었다. 그리고 착한 백성이 되라고 했다.

전우치는 임금에게 돌아갔다. 임금은 이미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 임금은 전우치를 칭찬하며 큰 상을 주었다. 전우치를 미워하던 관리들도 전우치를 칭찬했다.



20

## 견우와 직녀

하늘나라 옥황상제에게는 직녀라는 어여쁜 딸이 있었다. 직녀는 하늘나라의 옷감 짜는 일을 맡아서 했다.

어느 날 직녀는 산책을 하다가 들판에서 소를 치고 있는 견우를 보았다. 늠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견우의 모습에 직녀는 홀딱 반했다. 그날부터 직녀는 시녀들과 함께 견우를 자주 보러 갔다. 견우도 직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견우와 직녀는 옥황상제에게 둘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했다. 옥황상제는 성실한 견우가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

가축을 잘 돌보는 견우와 옷감을 잘 짜는 직녀가 있어서 옥황상제는 든든했다.

하지만 옥황상제의 기대와 달리 견우와 직녀는 매일 같이 일은 내팽개치고 놀러만 다녔다. 하늘나라의 소들은 점점 여위어 갔고, 옷감의 양도 부족해져만 갔다. 이를 알게 된 옥황상제는 견우와 직녀를 불러 불같이 화를 냈다.

“자신의 책임을 저버린 너희 둘의 죄가 크다. 그 별로 오늘부터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서, 직녀는 은하수 서쪽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옥황상제가 말했다. 옥황상제의 명을 들은 견우와 직녀는 가슴이 철렁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옥황상제의 명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견우와 직녀는 서로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었다. 둘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둘의 눈물이 비가 되어 지상으로 흘러내렸다. 지상에서는 비가 그칠 줄 몰라 점점 물이 불어났다.



점점 차오르는 물에 지상의 동물들은 집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동물들은 급하게 모여 회의를 했다. 호랑이, 곰, 여우, 사자, 토끼, 다람쥐, 뱀, 참새 할 것 없이 모두 모였다. 까치가 견우와 직녀 때문에 비가 계속 내린다는 것을 알아 왔다.

동물들은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 주기로 결정했다. 회의 끝에 까치와 까마귀가 은하수의 다리가 되기로

했다.

까치와 까마귀는 바로 하늘로 날아가 견우와  
직녀에게 다리가 되어 주겠다고 말했다. 단, 칠석에만  
놓아 줄 수 있다고 했다. 견우와 직녀는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그쳤다. 땅에서도 비가 멈췄다. 동물들은  
무사히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칠석이면 까치와 까마귀는 하늘로 올라가  
은하수 다리가 되었다. 견우와 직녀는 이날만큼은  
그리워하던 서로를 만나 행복할 수 있었다.



21

## 소금이 나오는 맷돌 1\*

아주 먼 옛날 한 임금님이 있었다. 임금님에게는 보물이 아주 많았다. 임금님의 창고에는 보물이 가득 있었다. 임금님은 혼자서만 창고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창고 속이 궁금했다. 하지만 아무도 창고에 들어갈 수 없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임금님을 찾아왔다. 신하는 임금님에게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귀한 그림을 바쳤다. 임금님은 그림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임금님은 신하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임금님은 상자에

---

\* 한국어읽기연구회(2013). 『소금이 나오는 맷돌』. 학이시습; 7~14쪽.

보물을 가득 담아 왔다. 임금님은 신하에게 보물이 담긴 상자를 주었다.

신하는 상자를 받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임금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들에게도 보물을 주실 텐데, 그러면 보물이 다 없어지겠어요.”

임금님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내 보물 창고에는 언제나 보물이 있다. 절대로 다 없어지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보물을 받아라.”

신하는 그래도 걱정하며 말했다.

“창고가 아무리 커도 보물은 없어질 겁니다. 이 보물은 나라를 위해 써 주십시오.”

임금님은 웃으며 신하에게 말했다.

“내 보물은 끝이 없다. 보물이 나오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이지.”

기분이 좋아진 임금님은 신하에게 비밀을 말해 주었다. 신하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데 임금님의 말을 시녀가 들었다. 시녀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말했다. 며칠 후 온 나라에 비밀이

알려졌다. 비밀을 안 사람들은 모두 임금님을 부러워했다.

임금님의 비밀은 요술 맷돌이었다. 요술 맷돌은 임금님의 창고 안에 있었다. 요술 맷돌은 원하는 것을 계속 나오게 했다. “보물 나와라!” 하고 맷돌을 돌리면 보물이 계속 나왔다. 그치고 싶으면 “보물 그쳐라!” 하면 되었다. 정말 신기한 맷돌이었다.

어느 날 도둑이 맷돌 이야기를 들었다. 도둑은 꼭 맷돌을 갖고 싶었다. 맷돌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도둑은 임금님의 맷돌을 훔치기로 했다.

도둑은 밤에 궁궐에 들어갔다. 어깨에는 자루가 있었다. 자루에는 금으로 만든 돈이 있었다. 금돈은 도둑의 모든 재산이었다. 맷돌만 있으면 금돈은 필요 없었다. 그래서 병사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금돈을 쓰기로 했다.

창고 앞에는 병사들이 많았다. 도둑은 창고 옆 근처 나무 위에 숨었다. 나무 위에서 금돈 여러 개를 멀리

던졌다. 돈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병사들이 금돈을 보고 면 곳까지 달려갔다. 병사들은  
금돈을 줍느라 바빴다.  
도둑은 그사이에 창고로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맷돌밖에 없었다. 다른 보물은 하나도 없었다. 도둑은  
맷돌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궁궐을 빠져나와  
달아났다.



22

## 소금이 나오는 맷돌 2 \*

도둑은 요술 맷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도둑은 맷돌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 그런데 무엇을 달라고 할지 정할 수가 없었다. 돈도 가지고 싶고 쌀도 가지고 싶었다. 도둑은 무엇을 먼저 말할까 망설였다.

그때 밖에서 병사들 소리가 들렸다.

“궁궐에 도둑이 들어왔다! 도둑이 임금님의 보물을 훔쳤다. 도둑을 잡아라!”

도둑은 깜짝 놀랐다. 이대로 있다가는 붙잡힐 것 같았다. 도둑은 얼른 맷돌을 자루에 담았다. 도둑은

---

\* 한국어읽기연구회(2013). 『소금이 나오는 맷돌』. 학이시습; 15~22쪽.

자루를 메고 집을 나왔다. 다른 나라로 가야 할 것 같았다.

도둑은 자루를 메고 바닷가로 갔다. 도둑은 사공에게 배를 빌리려고 했다. 사공은 밤이라 바다에 갈 수 없다고 했다. 도둑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사공에게 주고 사공의 배를 샀다. 도둑은 배에 맷돌을싣고 떠났다.

바다 한가운데에 오자 조금 마음이 놓였다. 도둑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통 바닷물뿐이었다. 배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도둑은 크게 웃었다. 이 세상에 요술 맷돌과 자기만 있는 것 같았다.

도둑은 이제 맷돌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도둑은 비싼 물건이 무엇인가 한참 생각했다. 잠시 후 도둑은 소금이 생각났다. 옛날에는 소금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소금이 무척 비쌌다. 도둑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맷돌아, 소금을 줘!”

도둑의 말이 끝나자마자 맷돌이 움직였다. 맷돌은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맷돌에서 정말로 하얀 소금이 나왔다. 소금은 계속해서 나왔다. 도둑은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이 소금을 팔면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난 임금님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도둑은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추었다. 그사이에도 소금은 계속 나왔다. 도둑은 소금을 두 손 가득 담아서 머리 위로 뿐혔다. 소금이 맷돌에서 계속 쏟아졌다. 도둑은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한참 후 배 안은 소금으로 가득 찼다. 배는 소금 때문에 몹시 무거워졌다. 춤을 추던 도둑은 갑자기 춤을 멈췄다. 배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았다. 맷돌에서는 계속 소금이 나오고 있었다. 소금은 도둑의 허리까지 올라왔다.

도둑은 갑자기 무서웠다. 소금이 넘쳐서 바다로 흘러내렸다. 계속 소금이 나오면 배가 바다에 빠질 것 같았다. 그러면 도둑도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도둑은 소금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금은 계속 나왔다. 도둑은 맷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몰랐다. 맷돌에게 그치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소금이 배를 완전히 덮었다. 배는 점점 밑으로 가라앉았다. 도둑은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바다에는 배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발버둥 치던 도둑은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맷돌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맷돌은 바닷물 속에서도 돌았다. 소금은 계속

나왔다. 소금은 바닷물에 모두 녹았다. 그래서  
바닷물은 점점 더 짜게 되었다. 바닷물은 지금도 매우  
짜다. 그것은 맷돌이 아직도 계속 돌기 때문이다.



23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 저 멀리 동쪽에 지혜로운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의 임금님은 밤낮없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백성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임금님에게도 한 가지 말 못 할 걱정이 생겼어요. 백성들의 소리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여서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임금님의 귀가 점점 길어지는 것이었지요. 임금님은 자신의 커다란 귀를 사람들 앞에 내보이기가 부끄러웠어요. 다행히도 길어지는 귀는 왕관으로 가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귀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자꾸 자꾸

길어졌어요. 왕관으로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길어졌어요. 귀 때문에 점점 솟아오르는 왕관을 볼  
때마다 임금님의 시름은 깊어졌어요.

어느 날, 임금님은 고민 끝에 왕관 장인을 불렀어요.  
왕관 장인이 방에 들어오자 임금님은 왕관 장인 외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왕관  
장인은 자신이 큰 죄를 저지른 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냅다 옆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요.

“전하,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인이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전하.”

왕관 장인의 덜덜 떠는 목소리에 임금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대는 고개를 들라.”

임금님이 말했어요.

왕관 장인은 고개를 들어 반쯤 감은 눈으로 임금님을  
바라보았어요. 왕관 장인은 임금님을 보고 너무 놀라  
두 눈을 의심했어요. 임금님의 귀가 마치 당나귀  
귀처럼 너무나도 길었거든요.

“그대가 보았듯이, 내 귀에 문제가 있네. 그동안에는 지금 이 왕관으로 가려졌어. 하지만 이제는 역부족이네. 자네가 나를 위해 왕관을 만들어 줘야 해.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비밀이네.”

임금님은 조심스러우면서도 강하게 말했어요. 왕관 장인은 알겠다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 이후로 왕관 장인은 때마다 임금님 방에 혼자 들어갔어요. 새로운 왕관과 함께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임금님의 귀는 아직도 길었지만, 더 이상 자라지는 않았어요. 왕관 장인도 더 이상 임금님의 새 왕관을 만들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긴 세월 동안 말하지 못할 비밀을 안고 지내는 것은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왕관 장인의 얼굴은 무척 수척해졌고, 가슴은 늘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몸져누웠어요.

임금님은 왕관 장인이 병에 걸려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왕관 장인이 걱정된

임금님은 신하를 통해 귀한 약을 보냈어요. 그래도  
왕관 장인의 병세에는 차도가 없었어요.

어느 날, 임금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왕관 장인이  
보낸 것이었어요. 왕관 장인은 자신이 죽을 때가 다  
되었다며 딱 한 번만 어명을 어기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어요. 임금님은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왕관 장인의 병이 자신과의 약속 때문임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바로 답장을 보냈지요.

임금님의 편지에는 대나무 숲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에 가서 말하라는 뜻이었지요.  
임금님의 답장을 받은 왕관 장인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람들이 없는 대나무 숲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힘을 쥐어짜 이렇게 소리쳤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힘껏 소리친 왕관 장인은 마음이 아주 후련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왕관 장인은 그날 밤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왕관 장인이 죽은 후부터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나무를 벨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울리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대나무 숲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얘기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임금님만은 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준 왕관  
장인이 안쓰럽고 고마웠어요.

임금님은 대나무 숲 앞에 왕관 장인을 위한 비석을  
세워 주었어요. 그리고 왕관 장인의 후손들을  
대대손손 보살펴 주었어요.



24

## 시골 쥐와 서울 쥐

서울 쥐는 기차를 타고 사촌이 사는 시골에 놀러 갔습니다. 시골 쥐가 이번에 큰 혀간으로 이사를 하면서 서울 쥐를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쥐는 시골에 가는 동안 무척 설렜습니다. 혀간이라는 곳은 얼마나 크고 좋을지, 맛있는 음식들은 얼마나 많을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하자, 마중을 나온 시골 쥐가 보였습니다.

“서울 쥐야, 여기야 여기! 잘 지냈어? 그동안 뎅치가 많이 좋아졌구나!”

시골 쥐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서울 쥐도

오랜만에 만난 시골 쥐가 반가웠습니다.

시골 쥐와 서울 쥐는 짐을 나눠 들고 시골 쥐의 큰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큰 헛간으로 가는 길은  
흙길에다가 돌도 많아 ~~울퉁불퉁~~했습니다.  
‘흙길로 다니니까 자꾸 신발과 바지에 흙이 묻잖아?  
아휴 더러워.’

서울에서 정돈된 도로로 다녔던 서울 쥐는 시골의  
흙길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시골 쥐에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은 곧이어 시골 쥐가 살고 있는 큰  
헛간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쥐야, 먼 길 오느라 피곤하지? 이쪽에 짚을  
깔아 놨어. 푹신할 거야.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쉬고 있으렴.”

시골 쥐가 말했습니다. 피곤했던 서울 쥐는 바로 짚  
위에 누웠습니다. 짚이 익숙하지 않은 서울 쥐는  
따갑기만 했습니다.

시골 쥐가 저녁밥을 먹자고 서울 쥐를 불렀습니다.  
시골 쥐는 그동안 열심히 모은 곡식들로 저녁 식사를

풍성하게 차렸습니다. 옥수수, 쌀, 보리, 콩 등  
먹음직스러운 곡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쥐는 딱딱한 곡식들이 먹기 불편했습니다.

“시골 쥐야, 이렇게 딱딱한 음식들을 어떻게 먹니?  
우리 서울에는 부드럽고, 달콤하고, 고소한 음식들이  
잔뜩 있어. 내일 우리 집에 같이 가자꾸나.”

서울 쥐가 말했습니다.

“내일? 그래. 나도 서울에 한번 가 보고 싶었어.”  
시골 쥐가 말했습니다. 서울 쥐는 당장이라도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쥐에게  
멋진 서울의 모습과 맛있는 음식을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시골 쥐와 서울 쥐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울  
쥐의 집으로 가는 동안 시골 쥐는 사람들에게 밟힐까  
봐 긴장하며 움직였습니다. 또 시골 쥐는 날쌔게  
지나가는 자동차에 치일 뻔했습니다.



“자, 다 왔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으리으리한 집을 보며 서울 쥐가 말했습니다. 시골 쥐는 자신의 혀간이 가장 크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서울 쥐의 집에 비하면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쥐와 시골 쥐는 담 벽에 뚫린 쥐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온갖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치즈, 케이크, 젤리 등 시골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람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과 같이 고양이 한 마리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시골 쥐야, 얼른 숨어!”

서울 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울 쥐와 시골 쥐는 쏜살같이 도망갔습니다. 시골 쥐는 냉장고 밑에 숨어 별별 떨었습니다.

사람과 고양이가 나가고 서울 쥐와 시골 쥐는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쥐는 너무 놀란 나머지 속이 안 좋아져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시골 쥐는 맛있게 음식을 먹는 서울 쥐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시골 쥐는 밤이 되자 서울 쥐가 깔아 준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이불은 따듯하고, 깊보다 푹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골 쥐는 자신의 혀간이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골 쥐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시골 쥐야, 벌써 집에 가려고 하는 거야?”

서울 쥐가 물었습니다.

“응. 나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우리 혀간이 제일 좋아. 그리고 나에게는 시골에서 먹는 곡식들이 훨씬 맛있어.”

시골 쥐가 대답했습니다. 시골 쥐는 서울 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5

## 손톱 먹은 둔갑 쥐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열심히 과거 준비를 하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밤낮없이 공부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책을  
보다가 호롱불에 비친 자신의 손톱을 보았습니다.  
손톱이 너무 길어 책장을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젊은이는 손톱을 반듯하게 잘랐습니다. 자른 손톱은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젊은이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낙담을 하고 어깨가 축 처진 젊은이는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한양에서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떠돌다가 자려고 누웠는데,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의 얼굴이 펴똑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은이는 곧바로 짐을 싸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젊은이는 문 앞에서 하인을 불렀습니다. 문을 열고 젊은이를 본 하인의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다래졌습니다.

“아니, 문은 열지 않고 왜 가만히 서 있는 게냐?”

몹시 피곤했던 젊은이는 얼른 문을 열라며 하인을 재촉했습니다.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이고, 주인님! 마님!”

하인은 문을 열고 급하게 달려가서 젊은이의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방에서 나온 젊은이의 부모님도 젊은이를 보자마자 튀어나올 듯이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본 젊은이도 너무



놀라서 입이 떠억 벌어졌습니다. 부모님 옆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가짜가 서 있었습니다.

“저놈은 가짜이고, 제가 진짜 아들입니다!”

젊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때부터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둘에게 가족들의 이름과 생일을 물어보았습니다. 진짜와 가짜 모두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은 어릴 적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둘 다 맞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곳간에 있는 곡식의 종류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딱 한 명, 가짜만 정답을 맞혔습니다.

젊은이는 양반집 도련님이었고, 늘 공부만 했던 터라 곳간에 들어갈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곳간에 어떤 곡식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젊은이는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젊은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젊은이는 고민하다가 마을의 절을 찾아갔습니다. 절에서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머물게 해 주었습니다.

절에 도착한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글픈 젊은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한 스님이 젊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는 무슨 연유로 이리 슬프게 울고 계십니까?”  
스님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의 말을 들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놈은 사람의 손톱을 먹고 모습을 바꾸는 둔갑  
쥐입니다. 아주 요망한 녀석이지요. 고양이 한 마리를  
풀에 숨겨 집으로 다시 가 보세요. 그럼 젊은이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허허.”

젊은이는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고양이를 품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짜가 젊은이를 내쫓으려  
하는 순간, 젊은이는 품속에서 고양이를 꺼냈습니다.  
고양이를 본 가짜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쏜살같이 쫓아가서 가짜의 목을 덥석  
물었습니다. 쓰러진 가짜는 쥐로 변했습니다. 스님의  
말처럼 쥐가 젊은이의 손톱을 먹고 젊은이로 둔갑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몰라본 것이 무척이나  
미안했습니다. 부모님은 젊은이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젊은이는 집안일에도 관심을 가지며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합격하여 어려운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좋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26

## 젊어지는 샘물

옛날 옛날에 마음씨 좋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사이가 무척 좋았다. 자식이 없어 둘이서만 오붓하게 지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 힘이 들어 잠시 바위에 앉아 새참을 먹고 있는데, 지빠귀 한 마리가 다가왔다. 할아버지는 지빠귀에게 밥알을 떼어 던져 주었다.

“새야, 너도 배가 고풀가 보구나. 요것 좀 먹어 봐라.”  
지빠귀는 할아버지가 던져 준 밥알을 맛있게 주워 먹었다.

밥을 다 먹고 물통을 보니 물이 다 떨어졌다.

할아버지는 물을 뜨러 산속으로 더 들어갔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물을 뜨는 곳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빠귀 한 마리가 할아버지 주위를 계속 맴돌았다. 마치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 같은 몸짓을 했다.

할아버지는 지빠귀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지빠귀를 따라 조금 더 들어가니 마침내 샘물이 하나 보였다. 할아버지는 시원하게 샘물을 세 번 들이마셨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젊은이가 되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다. 몸이 가벼워진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있던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늦게 오자 걱정이 되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저 멀리서 지게를 이고 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다가온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웬 젊은이였다.

“아니, 당신은 누구세요?”

할머니가 젊은이로 변한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니 할멈, 무슨 소리요. 누구긴 누구야. 당신 남편이지요.”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맞았다. 하지만 젊었을 적 얼굴이었다.

“여보, 당신 모습이 젊었을 때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젊어졌어요?”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말투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오늘 산에서 있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얘기해 주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샘물을 먹고 젊어진 것이라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그 샘으로 가 보았다. 그리고 할머니도 샘물을 세 번 마셨다. 그랬더니 할머니의 모습도 젊어졌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쁜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이 지난 후, 옆집에 살던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놀러 왔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아니,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젊어진 거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다.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를 들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서둘러 산으로 향했다.

할아버지가 얘기해 준 장소에 가 보니 정말로 맑은 샘 하나가 있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얼른 샘물을 한 번 마셨다. 그러자 손에 주름이 조금 사라졌다. 그리고 연이어 두 번을 더 마셨다. 손의 주름이 다 사라졌다.

‘옆집 영감이 세 번을 마셨다고 했지? 나는 더 젊어져야지. 네 번까지 마시자.’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두 손 가득 물을 떠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셨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잘  
돌아왔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 보았다. 그런데 밤이 늦었는데도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집에 없었다. 걱정이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샘으로 가 보았다.

샘에 도착하니 아기가 샘물 옆에 누워 울고 있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기가  
된 것이다.

“여보, 그 양반이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우리가 이 아기를 데려다 키웁시다.”

할머니가 말했다.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랑으로 아기를 잘  
키웠다. 아기도 마음씨 좋은 부모님 밑에서 바른  
청년으로 행복하게 자라났다.



## 복을 받은 흥부 \*

흥부의 집에 도착한 새끼 제비가 큰 소리로  
지저귀었다. 흥부가 새끼 제비를 알아보았다.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구나. 제비야, 반갑다.”  
흥부가 새끼 제비에게 말했다. 그때 새끼 제비가  
입에 물고 있던 박씨를 떨어뜨렸다.  
‘제비가 왜 박씨를 가져왔을까?’  
흥부는 기뻐하며 새끼 제비가 준 박씨를 심었다.  
박씨를 심고 이삼일이 지났다. 싹이 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에는 싹에서 잎이 나왔다. 그리고 꽃이 피더니

---

\* 한국어읽기연구회(2013). 『흥부놀부전』. 학이시습; 42~49쪽.



둥근 박이 열렸다.

희고 둥근 박이 점점 커져 갔다. 흥부와 아내는 벌써  
부자가 된 것 같았다.

“박을 잘라서 끓여 먹어요. 바가지는 시장에 가서  
팔면 좋겠어요.”

흥부 아내가 말했다. 흥부네 아이들도 박을 보고  
좋아했다. 흥부네 가족은 박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신이 났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흥부네 지붕에서 둥근

박이 익어 갔다. 사람들은 추수를 하느라 바빴다.

그러나 땅이 없는 흥부는 추수할 것이 없었다.

“아버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흥부네 아이들이 말했다.

“어머니, 박이라도 타서 끓여 먹어요.”

아이들이 흥부와 아내를 졸랐다.

흥부가 박을 하나 땠다. 흥부와 아내가 마주 보고  
톱을 잡았다. 그리고 박을 타기 시작했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다. 흥부네 가족은 박을 먹을  
생각에 모두 행복했다.

박이 갈라졌다. 갈라진 박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흥부네 식구들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다. 잠시 뒤에  
박에서 어린아이가 걸어 나왔다.

아이가 흥부네 가족에게 말했다.

“이것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 못 보는 사람도 보게 하는 약입니다. 팔아서  
쓰십시오.”

아이는 약을 내려놓고 연기와 함께 사라졌다.

홍부와 아내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에서 사람이 나오다니, 이게 꿈은 아니지요?”

홍부 아내가 놀라서 말했다. 그러나 먹을 것을

기다리던 홍부네 아이들은 실망했다.

“약이면 먹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배가 고파요.”

홍부네 아이들이 말했다. 아이들의 말을 들은

홍부가 지붕에 올라가 다시 박을 땖다.

홍부와 아내가 두 번째 박을 땖다.

“슬근슬근 텁질하세, 슬근슬근 텁질하세.”

아이들은 또 노래를 불렀다. 두 번째 박이 갈라졌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다. 책, 가구, 이불,

옷, 그릇 등이었다. 홍부와 아내는 정말 기뻐했다.

또 박 한 통을 잘랐다. 이번에는 금으로 된 상자가

나왔다. 상자 속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다.

“우리는 부자가 되었어요!”

홍부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다.

“다른 박도 잘라 봅시다. 아이들이 배고프겠어요.”

홍부가 말을 하고 서둘러 박을 땠다.

홍부와 아내가 신이 나서 네 번째 박을 잘랐다.

이번에는 남녀 하인들이 곡식을 들고 나왔다.

“주인님, 저희는 무엇을 할까요?”

남자 하인들이 홍부에게 물었다.

“큰 집이 필요하니까 얼른 집을 지어라.”

홍부가 말했다.

“마님, 저희는 무엇을 할까요?”

여자 하인들이 홍부 아내에게 물었다.

“어서 밥상을 차려라.”

홍부 아내가 말했다.

홍부네 가족은 춤을 추며 기뻐했다. 홍부네 가족은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살게 되었다.







28

## 돌멩이 수프

길을 떠돌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가난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무척  
낡고 해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은 신발도 구멍이  
여기저기 나서 너덜너덜했습니다.

어느 날 떠돌이 청년들이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해 보이는 마을이었습니다.  
두 떠돌이 청년은 이 마을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떠돌이 청년들은 파란 대문이 있는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자 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가 뭉시 고파서 그런데 먹을 것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돌아가세요!”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문을 세차게 닫아 버렸습니다.

실망한 떠돌이 청년들은 다른 집으로 가 보았습니다.

마을을 돌며 먹을 것을 부탁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뿐이었습니다.

“겉모습과는 다르게 이 마을도 가난한 마을인가 봐.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법의 수프를 끓여 주자.”

떠돌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떠돌이 청년들은 마을 광장에 가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사실 요리사들입니다. 커다란 솥  
하나 가져오시면 맛있는 수프를 끓여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가 아주 큰 솥을  
가져왔습니다. 청년들은 솥에 물을 채우고 불을  
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솔 주위를 둘러보더니 주먹만 한 돌멩이 하나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솔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저희는 아주 고소하고 맛이 좋은 돌멩이 수프를 끓일 것입니다!”

돌멩이를 솔에 넣은 청년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돌멩이 수프라고?”

“그런 수프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처음 들어 본 수프인데 맛이 궁금하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돌이 청년이 보글보글 끓는 솔을 보며 난감한 표정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가 들어가면 더 맛있는 수프가 될 텐데…….”

옆에서 청년의 말소리를 들은 한 아주머니가 얼른 집으로 달려가 감자 한 알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감자 있어요! 아쉽지만 한 알이 다네요.”



아주머니가 청년에게 감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떠돌이 청년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잠시 후, 청년은 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몇 가지 재료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곧 완성될  
텐데….”

사람들은 너도나도 후다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손에는

약간의 식재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근, 콩, 양파, 파, 옥수수, 호박, 버섯 등의 재료들이었습니다. 떠돌이 청년들은 재료를 받아 커다란 솥에 조심히 넣었습니다. 솥은 금세 풍성해졌습니다.

재료들이 익어 가자 어느새 수프에서는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냄새에 침을 꿀딱 삼켰습니다.

수프가 끓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그릇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숟가락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또 소금, 빵, 과일 등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적은 양이었지만 하나둘씩 모이니 어느새 풍성한 식사가 되었습니다.

뜨끈하고 맛있는 수프를 한 숟가락 입에 넣자 팍팍했던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와 활기가 돌았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에도 온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떠돌이 청년들 주위로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청년들을 문전 박대한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수프 덕분에  
오랜만에 활기가 돋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두  
청년의 얼굴에도 따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9

## 성냥팔이 소녀

어느 추운 겨울, 함박눈이 평평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몸을 움츠리며 빠른 걸음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반짝이는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캐럴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빵집 앞에 남루한 모습의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추위에 떨며 가냘픈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하지만 아무도 소녀의 성냥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소녀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놀란 소녀는 넘어졌습니다.

한 소년이 벗겨진 소녀의 신발 한 짝을 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소녀가 팔던 성냥들도 바닥에 떨어져 흩어져 버렸습니다. 성한 것을 주워 담았지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너무 추워 손끝이 아려 왔습니다. 발도 너무 시렸습니다. 발끝에서 더 이상 아무 느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추위와 배고픔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따듯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창문을 보았습니다. 소녀의 눈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소녀는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은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소녀는 너무 춥고 힘에 부쳐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는 어느 건물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냥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떴습니다. 불이 환하게 퍼지더니  
순간 따듯한 난로가 나타났습니다. 소녀의 얼었던  
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성냥불은 곧  
꺼졌습니다. 따듯했던 난로도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새 성냥개비를 꺼냈습니다. 성냥에 불을 또  
지피자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식탁이  
나왔습니다. 고기 요리, 뜨끈한 수프,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손을 뻗으면 바로 먹을 수 있을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성냥불이 꺼지자

이번에도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다시 성냥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크고 화려한 크리스마스트리가 나타났습니다. 소녀가 지금까지 봤던 트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트리였습니다. 소녀는 눈이 부시게 황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트리에 손에 뻗었습니다. 그러자 성냥불과 함께 트리가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한 번 더 성냥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소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었던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소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가시면 안 돼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흑흑.”

소녀는 할머니를 향해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남아 있던 성냥을 모두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타오르자 할머니의 모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소녀는 얼른 할머니의 품 안으로 뛰어가 안겼습니다.

할머니의 품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포근하고

따스했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춤지도,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밤새 추위에 견디지 못했나 봐요.”

“쯧쯧, 어린 것이 안쓰러워서 어찌나.”

“그리게요. 어제 성냥을 좀 사 줄 걸 그랬어요.”

사람들은 소녀를 보며 안타깝다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소녀는 사람들의 관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작은 미동도 없이 찬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거둔 소녀의 주위에는 까맣게 타

버린 성냥개비들이 한 옴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소녀는 그 어느 때보다

따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소녀는 미소를 지은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소녀의 미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

##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에 새 옷을 무척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다.

임금님은 나랏일에도, 백성들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직 새 옷과 장신구에만 관심이 있었다.

어느 날, 낯선 사람 두 명이 임금님을 찾아왔다.

“임금님, 저희는 신기한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직공들입니다. 이 옷은 색깔과 무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요. 하지만 능력이 없거나 바보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낯선 사람들의 말에 솔깃했다. 신기한

옷감으로 만드는 옷이 탐났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멍청한 신하들을 가려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옷을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임금님이 말했다.

임금님은 두 사람에게 옷감을 짤 수 있도록 베틀을 설치해 주고 돈도 많이 주었다. 또 비단실과 금실도 준비해 주었다.

두 직공은 큰 방에 들어가 베틀을 움직였다. 하지만 베틀에는 실이 한 가닥도 없었다. 임금님을 찾아온 두 직공은 사실 사기꾼들이었다. 사기꾼들은 일을 하는 척하면서 하루 종일 탱자탱자 놀았다.

며칠이 지나자 임금님은 옷이 잘 만들어지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자신의 눈에 옷이 안 보일까 걱정도 되었다. 그래서 신하들을 먼저 보내 보기로 했다.

임금님은 제일 먼저 지혜로운 늙은 장관을 보냈다. 늙은 장관은 사기꾼들의 방에 찾아갔다. 사기꾼들은 늙은 장관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런데 늙은 장관의 눈에 옷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옷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내가 바보란 말인가. 옷이 보이는 척을 하자.’

늙은 장관은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임금님께 돌아온 늙은 장관은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임금님, 그처럼 우아하고 기품이 느껴지는 옷은 처음 보았습니다. 두 직공들의 솜씨가 매우 뛰어난 듯합니다.”

임금님은 아주 흡족했다. 역시 늙은 장관은 지혜롭고 훌륭한 신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는 영리하고 정직하기로 소문난 젊은 신하를 보냈다. 젊은 신하의 눈에도 사기꾼들이 만든 옷감과 옷이 보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임금님께 돌아온 젊은 신하도 늙은 장관과 똑같이 거짓말을 했다.

“임금님, 그 옷감의 무늬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무늬들이 만들어 내는 조화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젊은 신하가 말했다.

임금님은 자신이 뽑은 신하들의 됨됨이가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다.

며칠 뒤 임금님은 드디어 옷이 다 완성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임금님은 직접 옷을 보러 갔다.

“임금님, 옷이 마음에 드십니까?”

사기꾼들이 물었다. 신하들은 옆에서 옷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임금님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이럴  
수가. 내가 바보였단 말인가.’

임금님은 눈앞이 캄캄했다. 사실대로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오, 이렇게 훌륭한 옷이라니.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오늘 행진에 이 옷을 입고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수고한 이 두 직공들에게는 금화 100돈씩 내어 주어라.”

임금님도 옷이 보이는 척 거짓말을 했다. 사기꾼들은 뒤에서 자기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며 소리 없이 웃었다.

임금님은 새 옷을 입고 행진에 나갔다. 거리에는 구경 나온 백성들이 가득했다. 임금님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순간 너무 놀랐다. 오색찬란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할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곧 옷이 보이는 척하기 시작했다.

“임금님의 옷이 정말 멋지네요.”  
“그렇죠? 역시 우리 임금님은 멋을 아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 순간 한 아이가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잖아? 하하.”

아이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너 나 할 것 없이 웃기 시작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입은 게 맞죠?”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외쳤다.

임금님은 창피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행진을 멈출 수는 없었다. 임금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이전보다 더 당당하게 걸었다. 신하들도 있지도 않은 임금님의 옷을 잡는 척하며 임금님을 뒤따라갔다.

**엮은이**

**김수지**

이소문해력연구소

**김인숙**

(사)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박미라**

열린시민터 해봄

**서화진**

(사)푸른사람들 부설 푸른어머니학교